

“무기계약직 차별 보도 인터넷매체 사실 왜곡”

조계종 총무부, 관련내용 브리핑
비정규직 문제 딜레마…유감 표명

종단이 최근 한 인터넷 매체에서 무기계약직 관련 내용을 보도한데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는 지난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7월20일자로 제정공포한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을 공개하고 “(보도 내용 가운데)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이 자리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총무부 관계자는 특히 ‘정규직에 적용되지 않는 직급정년제를 도입했다’고 명시한 부분은 “명백한 오보”라고 비판했다.

총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일반직 종무원에도 직급정년제가 도입돼 있는데, 마치 무기계약직에만 적용하려 한다는 것은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임금이나 복지수준이 정규직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조사비, 학자금 지급 등의 규정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며 “다만 종단 예산과 인건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채용하기보다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군을 신설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 특성상 급여 차이는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관련 내용으로 차립장 회의 등을 열어 내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내부 인터넷에도 제정공포한 날 내용을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무부가 밝힌 것처럼, 종단 제반 상황을 고려해 규정을 신설했다고는 하지만, 일반에서도 무기계약직이 결국 ‘무기한 계약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종단이 이를 성급하게 도입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총무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다 종교단체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데 당연히 동의한다”면서 “주무부서로서 향후 도출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듣고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최근 종무원조합 원우회로부터 (가칭) 직장협의회 설치 관련 공문을 받았고 내부 결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무형문화재 ‘국행수륙대재’ 봉행

진관사 21일 입재…10월9일까지
삼화사 10월 14~16일 3일 동안

조선시대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을 기원했던 수륙재의 전통을 계승한 중요무형문화재 126호 서울 진관사 국행수륙대재(國行水陸大齋)와 제125호 동해 삼화사 국행수륙대재가 오는 10월 연이어 봉행된다.

진관사(주지 계호스님)와 (사)진관사국행수륙재보존회는 오는 10월8일부터 9일까지 경내서 국행수륙대재를 봉행한다. 진관사 수륙대재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진관사에 4번 거동(學動)해 59칸 규모의 수륙사(水陸社)를 세우고 국행수륙대재를 봉행한 것에 연유하고 있다. 이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같은 전통이 사라졌다가 지난 1977년 자운

스님과 진관스님이 복원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진관사국행수륙재보존회와 부설 진관사수륙재학교가 수륙대재를 보존 및 전승하고 있다. 특히 진관사 수륙대재는 조선시대 전통적인 수륙대재인 칠칠재(七七齋) 형식으로, 낮에 지내는 ‘낮재’와 밤에 지내는 ‘밤재’의 이부 형식을 전승하고 있다. 단차림도 조선 세종 2년(1420년) 국행수륙대재 단차림 규정에 따라 마련되는 등 수륙대재 설행의 중심사찰로 불교의례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지난 21일 입재한 진관사 수륙대재는 오는 10월8일 오전9시 명부전 앞마당에서 회향한다. 회향 첫째 날은 시련과 대령, 관육, 신중작법, 과불 이운, 영산작법 등으로 ‘낮재’를 올린다. 이어 둘째 날에는 ‘밤재’의 시작을 알린 뒤 수륙연기와 사자단, 오로단, 상단소청, 중단소청, 하단소청, 상단권공, 중단권공, 하단시식, 봉송회향 등 조선시대에 거행된 수륙대재의 전

통적인 방식에 따라 진행된다.

삼화사국행수륙대재보존회(회장 효립스님)도 오는 10월14일부터 16일까지 경내서 국행수륙대재를 연다. 삼화사 수륙대재는 조선 태조가 건국과정에서 희생된 영혼을 위로하고 진(禪)고려 성향의 세력을 포용해 백성들과 소통·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태조 4년에 설행(設行)한 것이 시조다.

특히 삼화사 수륙대재는 의례서인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강원도 유형문화재 160호)에 의거해 3일 동안 전통의례서에 따라 설행된다. 첫째 날인 14일 오전9시 시련과 대령을 시작으로 범요식, 조전점안, 과불 이운, 쇄수결계, 사자단 등이, 둘째 날에는 오로단과 상단, 한다례, 설법, 중단 등이, 셋째 날에는 방생과 하단, 금강경 독송, 봉송회향 등이 진행된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이 지난 18일 신임 인사자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해 “불교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교발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호영 신임 국회 정각회장

총무원장 자승스님 예방

주호영 신임 국회 정각회장(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정각회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신심이 깊고 불교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 회장을 맡아 기대가 크다”면서 “앞으로 왕성한 활동과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주호영 의원은 “종단은 물론이고 회원들과 잘 상의해 불교를 외호하고 불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예방에는 총무부장 지현스님, 기획실장 해일스님, 사서실장 심경스님, 이은재 국회의원(정각회 감사) 등이 배석했다.

한편 정각회는 오는 9월1일 정기국회 시작일에 맞춰 조계사에서 주호영 의원의 회장 취임 법회를 할 예정이었으나, 초하루 법회로 인해 다음날인 2일로 변경했다. 홍다영 기자

주경스님 동국대 감사 선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신임 감사에 불교신문 사장 주경스님이 선임됐다. 동국대학교(이사장 자광스님)는 지난 18일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열린 305회 이사회에서 제정스님 후임감사로 주경스님을 선출했다. 신임 감사의 임기는 교육부 승인일로부터 3년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연택 전 이사 후임을 선출하는 개방이사 선임의 건은 또 다시 유보됐으며, 신규교원 정년트랙으로 서울캠퍼스 이자광 불교학술원 HK연구단 조교수 외 7명, 경주캠퍼스 김영훈 영어영문학과 교수 외 7명이 임명됐다.

어현경 기자 eonardo@ibulgyo.com

“갑을오토텍 갈등, 대화로 풀어야”

사회노동위 등 4대 종교 기자회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등 종교계 단체 6곳은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갑을오토텍 사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종교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대자동차 등에 부품을 납품하는 갑을오토텍은 1년 넘게 노조의 장기 파업, 사측의 직장 폐쇄 등으로 인한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다.

종교계 인권단체들은 이날 “사측은 직장 폐쇄를 철회하고 노사 상호신뢰와 교섭으로 공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함을 통감하고 물리력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성실한 교섭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본·말사 주지 인사 (8월18일 종무회의)



성원스님
미국 연화정사



승현스님
시흥 해진선원



성주스님
수원 용화사



진구스님
영천 전문사



종현스님
대구 도림사



우진스님
합천 봉두사



상운스님
창원 정암사



불일스님
울산 무릉사



도승스님
영주 석문사

공 고

제52차 원로회의

제52차 원로회의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원로회의 의원 스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일 시 _ 불기2560(2016)년 8월 31일(수) 오후 2시

■장 소 _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

■안 건 _ • 원로회의법 개정안 논의의 건
• 기타사항

■문의처 _ 원로회의 사무처 (02-2011-1865)

불기2560(2016)년 8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밀 운

東軒堂 太玄 大宗師 涅槃 33週忌 追慕齋

東軒堂 太玄 大宗師 33週忌 追慕齋를 아래와 같이
奉行하오니 門徒스님들께서는 無漏同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불기2560(2016)년 9월 4일(음력 8월 4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장 소 : 화엄사 각황전

■연락처 : 화엄사 종무소 ☎ 061) 783-7600

불기2560년(2016)년 8월

大韓佛教曹溪宗 華嚴寺 住持 靈觀 合掌
第19教區 本寺

